

예수의 상담 사례를 통한 목회 상담적 통찰

송길원*

논문초록

이 논문은 예수의 상담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요한복음에 나타난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담 기술의 실재를 고찰함으로써 예수의 상담방법을 현대 목회 상담에 적용하기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예수의 상담방식이 현대 상담의 주요 기법들과 유사한 부분들을 통해 목회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대비시켜 찾아내고 있다.

예수의 상담 방법이 기본적으로 내담자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 내담자를 존중하면서 그 문제를 끌어내는 접근은 탁월하다. 이 접근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 목회현장의 상담적 한계를 극복하고 목회상담의 큰 틀을 세우고 있다. 또한 예수의 상담 방법이 내담자를 중심으로 하는 목회현장에서 진단자로서의 목사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 방식들에 대해 정리하고 있어 나아가 상담현장에서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하고, 현대 목회상담의 적용을 위한 탁월한 예수의 방법들을 다룸으로써 상담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한다.

핵심 주제어 : 상담, 목회상담, 예수상담 사례

* 송길대 겸임교수

I. 예수의 상담 이해

II. 문제해결의 기본원리

1. 찾아가는 상담
2. 열린 상담
3. 생활 상담

III. 상담자의 이해

1. 신체적 상태
2. 영적 상태
3. 한 사람의 철학

IV. 상담의 전략

1. Push-pull 전략
2. Attention-Impact 전략
3. Intention In-tention

V. 상담의 과정에서 본 통찰

1. 관계(rapport) 형성
2. Communicator로서 역할
3. 내담자에 대한 통찰

VI. 변화의 과정과 상담의 결과

I. 예수의 상담이해

신약성경을 통해 예수의 사역을 살펴보면 상당부분이 상담사역에 할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이해하지만 예수의 공생애 사역의 상당부분은 활발한 상담과 치유사역을 통해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는 사람을 돕는 방법은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심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치유하셨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arclay,

1984: 36). 특히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의 대부분은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이었음은 우리를 고무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기적들을 사람들은 외형적인 부분만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영혼과 육신의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막 2:1-12).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육체의 질병이 영혼의 상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 주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Barclay, 51). 결국 사람의 질병 치료를 상담과 내적치유를 통해 이루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상담방법에 대한 현대인들 특히 목회자들의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는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유를 위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수의 방법이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이었다는 것을 통해 예수의 돌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대 상담자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 상담과 치유활동을 하신 예수의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통해 상담을 위한 접근 방법을 통해 내담자와의 관계를 형성하여 상담에 이르는 예수의 방식을 이해하고, 이렇게 형성된 상담을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상담기술 특히 상담자와 내담자의 교류를 통해 일어나는 상담의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담전략에 대한 이해를 할 것이다. 물론 예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적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례가 예수의 상담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의 상담에 대한 통찰을 주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예수의 상담전략을 엿봄으로 상담전략의 변화과정을 통한 예수의 상담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고찰을 할 것이다.

II. 문제 해결의 기본 원리

1. 찾아가는 상담

현대 상담의 기본은 칼 로저스의 상담방법이 대체적으로 보편화되려는 경향을 갖는다. 로저스의 상담은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오는 단계로부터 상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해한다(Rogers, 1998: 53). 이러한 상담의 기본원칙은 내담자가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지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담과정의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양한 자기방어 기제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되거나 문제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임하게 되는 방식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이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영적, 심적 황폐를 지켜보면서 내담자의 요청을 한없이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지속되기도 한다. 나아가 내담자 자신에게도 상담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고통과 고민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은 물론이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관계로 서서히 죽어가게 된다.

유명한 하키선수인 웨인(Wayne Gretzky)은 '나는 썩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갈 곳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다. 이 말에서 현대의 이러한 상담의 기본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의 상담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숨었다(창 3:8).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문제 자체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로 보인다(창 3:10).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는 곧바로 자기부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심한 죄책감과 회피로 인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죄를 못 이겨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심으로 그를 문제해결의 장으로 그를 불러내신다(창 3:9).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고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문제 해결의 최선의 방법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와 씨름해야 하는 것이다. 두려움에 떨던 아굽이 압복강 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나서 구원의 경험을 했던 것처럼 누구나 자신의 문제와의 씨름을 통해 구원을 불러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낙약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여워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아담의 낙약성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는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심으로 문제를 내놓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신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의 상담의 방식은 ‘찾아가는 상담’이었다. 문제를 끄집어내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코칭의 상담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들을 돌보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이러한 ‘찾아가는 상담’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송길원, 1995: 11).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무 멀리 와 있어 돌아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땅 위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내담자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숨 쉬다가 내담자의 문제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된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삶의 방식에 따라 그의 상담은 기다리는 상담이 아니라 문제를 끄집어내어 그 문제를 다루는 적극적인 상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인에게 다가가신 예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여인을 상담의 자리에 초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

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요 4:9)

우물가에 앉아 계시던 예수는 물을 길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을 때, 예수는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다(요 4:9a). 자연스럽게 예수의 상담이 시작된 것이었다. 당신의 상황으로 볼 때, 예수가 이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상당히 특별한 일이었다(요 4:9b). 이어지는 예수와 여인사이의 대화는 여인의 내적 심상을 고스란히 드러내놓고 상담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느’분으로 묘사하고 있다(히 4:15). 여기서 ‘체휼’이란 ‘동정’ 또는 ‘이해심’으로 읽을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성경은 이 말을 ‘sympathize’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이해하고 동정하는 공감의 심정이야말로 상담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스스로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다가감은 이 여인을 살리는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나가는 여인으로,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가 베푸신 말 한마디는 그 여인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낸 것이다(Meir & Davis, 1997: 16-18). 물을 길러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가가심으로 인해 구세주를 옆에 두고도 몰랐던 여인에게 생명을 주는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자신의 무료하고 무미건조한 삶에 드디어 생수를 만난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된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여인은 예수의 문제를 찾아가시는 방식을 통해 자기고백을 하고 결국 자신의 외로움을 적절하게 드러냄으로써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Nouwen, 1999: 112-123).

2. 열린 상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가식적으로 포장하지 않아야 한다(Meir & Davis, 1997: 29). 예수는 상담의 현장에서 자신의 감정은 물론 자

신의 모습도 숨기거나 포장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목마름과 행로에 피곤하셨음을 여실히 드러내 보임으로 내담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는 진실성이 우선된다. 아무리 많은 심리학적 지식이나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담자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을 갖추어야 한다(Pruyser, 2002: 30). 예수는 상담가로서 자신의 삶이 투명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통이나 괴로움도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심지어 실존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신의 고뇌조차 사람들에게 개방하셨다(마 26:38-40). 예수께서 자신의 인성(人性)의 부분을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신 것이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고 예수에 대한 진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유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외형적인 가식으로 일부러 먼 곳으로 돌아다니던 시대의 교만을 벗고 스스로 문제의 중심으로 자신을 내 던지고 계신 것이다(Childs, 1995: 108). 결국 사마리아에서 이틀이나 머무르시면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 두셨다(요 4:42). 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던 모습에서 보다 명확히 찾을 수 있다. 자신이 가야하는 길이기에 담담히 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마 26:39a)라는 기도 속에 드러나 있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기에 십자가의 고난이 더욱 강하게 우리의 내면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읊기를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이 마치 읊의 순결하고 정직한 모습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사람들은 읊의 ‘내 영혼이 살기에 준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매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미 읊에게 자신의 고난을 투사하여 고난을 승화시키고 고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는 것이다(읍 10:1). 이렇게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은 구원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생활상담

예수는 민감한 문제들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문제들을 다루고 계신다. 여인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문제 해결의 방식은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이어야 한다. 대부분의 상담가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은 윤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의 틀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역전이 현상이다(Childs, 110-111). 생활 속의 문제들을 다루는 예수의 방식은 회피하지 않으시고 적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읽고 그들의 본마음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만져주신다. 간음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탁월함을 엿볼 수 있다(요 8:7). 예수가 만난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는 말에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 되도다’는 말씀을 통해 여인에게 ‘선지자로소이다’는 답을 이끌어내고 있다(요 4:18-19). 생활의 문제, 삶의 현장을 알고 그 현장의 소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예수의 탁월함은 상담이 사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던지는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예수의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수를 향해 시험하여 던지는 그들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라는 질문에 예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 우문현답(愚問賢答)을 통해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신다(마 22:17-21). 이는 내담자가 상담자들에게 던지는 미끼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기 전에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문제를 통해 상담자를 시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도에 예수는 구체적인 상황설정과 지혜를 통해 상담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다.

생활과 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명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지 못한

다. 그런 점에서 그 동안 명제신학이 우리 신학계를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학에 있어서 명제신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십자가와 구원, 칭의와 중생, 종말과 재림 등 기독교의 기본진리에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와 상대적인 개념의 관계신학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둔 실천적인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명제신학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따라서 명제신학이 전통적 교리나 신학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데 사명을 둔다면, 관계신학은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므로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 생활현장이 주된 관심 분야가 된다. 성경은 이 둘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명제신학만을 고집할 때 과연 성경적 지식과 건전한 신학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겪는 우울증과 부부관계의 상처, 부모-자녀의 갈등들을 풀 수 있는 곳은 없게 된다. 각종 제자훈련과 성경공부들의 교재를 분석해 볼 때 대부분이 명제신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관계신학으로서의 대화, 인간관계, 가족의 가치, 내적 치유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명제신학적 관점에서 자연히 삶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훈련시키는 관계신학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보완해야 한다. 이것은 관계신학을 통해 성서신학으로의 복귀이며, 새 계명을 이상적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다. 관계신학은 인격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를 향상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둔 실천적인 과제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명제신학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심을 기울일 때, 관계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따라서 명제신학이 전통적 교리나 신학적 유산을 잘 보존하는데 사명을 둔다면, 관계신학은 삶의 현장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그러므로 가정, 교회, 직장, 지역사회, 생활현장이 주된 관심 분야가 된다. 성경은 이 둘을 다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명제신학만을 고집할 때 과연 성경적 지식과 건전

한 신학의 확립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겪는 우울증과 부부관계의 상처, 부모-자녀의 갈등들을 풀 수 있는 곳은 없게 된다(송길원, 2003: 352-353). 예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조차도 우리와는 달리 명제신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삶의 실천적이고도 낮은 자를 위한 눈높이 상담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계신다.

III. 상담자의 이해

1. 신체적 상태

예수는 상담을 최적의 상황에서만 한 것은 아니다. 현대 상담가들은 상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담자 자신의 최적의 상황을 고려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는 상담자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오류들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도도 결국은 내담자에 의한 변화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결국 상담자 자신의 신체적 상태에 대한 최적화가 관건이 아니라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상호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는 제6시로 한낮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이었다. 그 때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것도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되어진다. 결국 예수가 여인을 만나게 된 시점은 이미 오랜 여행으로 지쳐있는 피곤과 목마름의 갈증상태였다(요 4:6-7). 이러한 상담자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스스로 입을 열어 그 여인을 상담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다. 특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려 간 시기였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와 배고픔과 갈증으로 인해 상담자에게 신체적으로 악조건임에도 예수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의 교감을 나누고 계신 것이다. 결국 상담은 상담자의 최

적화가 관건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최적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영적상태

상담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신체적인 최적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상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탁월함은 영적 풍성함에 있다. 예수의 공생애는 휴식없이 진행되고 긴박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예수의 삶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영적인 충만함의 결여는 상담자의 탈진으로 이어지기 쉽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표상이 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영적 성숙과 영적 충만은 상담자의 힘(empowerment)의 근원이 된다(Solomon, 1983: 57-58). 결국 상담자의 탈진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내담자와의 영적 교류를 위해 상담자의 영적인 상태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는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한 종교를 가진 내담자를 치유하는 방식의 접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는 REBT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내담자의 종교적 신념을 상담자가 함께 공유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상담자의 종교적 신념을 내담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Nielsen 외, 2003: 30-33). 상담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상담자 스스로의 영적 고갈 상태로부터 벗어나 영적 산소를 제공하도록 만들어 상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담자가 자신의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킴으로 흔들림 없는 상담에 임할 수 있게 된다(김의식, 2003: 191-193). 또한 내담자의 문제해결도 자연스럽게 상징과 비유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게 된다. 실제로 예수도 그의 상담과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의 모든 힘이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리는 행동을 종종 하시곤 했다(막 7:34).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치료방법을 사용하면서도 하늘을 한번 쳐다봄으로 하늘의 권위를 인정하고 힘의 근원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Barclay, 79). 결국 예수도 하늘의 힘을 입지 않고는 그의 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으셨던 것이다. 어느 외과 의사의 고백처럼 자신은 수술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고백처럼 사람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한 사람 철학

예수의 접근방식은 한 사람의 철학이다. 이는 소자(小子)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철학이 상담에 고스란히 적용된다. 물론 현대 상담은 그 상담이 주로 개별 상담은 물론 집단상담이나 가족상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성경은 상담은 곧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핵(核)은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 한 사람의 변화가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 자신이 변화의 중심이 되고 있다(요 4:28-29). 한 사람의 변화가 가족과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소자 사상의 원리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개인중심의 해결방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고려한 상담의 파급효과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관심을 내담자 당사자에게 집중함으로써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관계는 상담자와 내담자에게 집중됨으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무리 가운데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병이 낫은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사람의 철학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막 5:25-34).

낙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기 위해 무리들에 섞여있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자 슬며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녀의 병은 나았다. 그런데 예수가 그녀

를 찾는 것이다. 슬며시 잡았기에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는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그녀는 군중 속에 묻혀있는 양이 아니라 벼랑 끝에서 예수의 목숨을 걸구 구해내는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양이 되어 있었다. 예수의 구원은 이렇듯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Barclay, 54-55).

예수께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일대 다수보다는 면대면(面對面) 방식으로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도타기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의 나비의 날개 짓이 미국에 폭풍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처럼 한 사람의 변화는 가족을 넘어서 한 마을을 변화의 장(場)으로 이끄는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몰아내시는 첫 걸음을 떤 것이다. 상담의 현장에서 많은 내담자들은 수 많은 결심을 하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힘들다고들 한다. 그 첫발을 내딛는 첫 번째가 바로 예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가 변화시킨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 한 사람의 변화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와 그 가족들의 구원까지 이루어 졌음은 기독교적인 상담, 특히 예수의 상담 철학의 중요한 실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행 16: 29-34).

IV. 상담의 전략

1. Push-Pull 전략

상담은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경기라고 할 수 있다. 내담자와 상담자는 서로 상대에 대해 상담초기부터 탐색을 시작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상담활동을 위해 내담자와의 유대관계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상담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Meier & Davis, 18). 상담자의 과제는 내담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문제를 향해 다가가는 것이다. 상담자는 확장된 이해, 상호존중, 그리고 공감을 통해 내담자를 상담에 끌어들이게 된다. 결국 이러한 대인관계의 기술은 상담을 원활하도록 할 뿐 아니라 상담관계를 발전시켜 내담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예수의 기적에서도 엿볼 수 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는 ‘선행 조건’을 항상 먼저 제시하신다. 이는 내담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행하는 전(前)행동으로 치유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처럼 이해되기도 한다(Barclay, 84-85). 이를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결국은 문제해결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와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하고 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이어지는 예수와 여인의 대화는 기선 제압을 위한 선문답처럼 보인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신 예수는 10절에서는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서로의 기대를 가늠해 보고 있다. 이처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은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신뢰형성으로 이어진다.

2. Attention-Impact 전략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소한 행동은 물론 때로는 목소리의 떨림까지도 감지해야 한다. 이는 내담자

의 심경의 변화를 읽어내고,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돕는 과정으로 적절한 조치를 위한 전략이다. 때로는 내담자 자신의 감추어진 문제들과 갈등하게 하고, 충돌하게 해서 스스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와의 대화는 이러한 임팩트가 강하게 나타난다. 목마름과 목마르지 않음, 물과 영생하는 생수의 대립구도를 유지하면서 내면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심층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Meier & Davis, 45). 이는 성급한 문제해결보다는 적극적인 문제 자체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면한 문제들을 비교적 객관화 작업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노력이다(Meier & Davis, 47).

3. Intention-In tention 전략

예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다. 상담자는 심판자가 아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오는 내담자는 거의 대부분 상처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분노를 숨기고 있어 그것이 표층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위협적이 되기도 한다(Kristeva, 2004: 30-33). 교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을 만나야 한다. 내담자가 다루는 것은 상담자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문제 뒤에 숨어있는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대화를 통해서는 그 문제들을 실제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 숲 속에서는 나무는 볼 수 있지만 숲 전체를 볼 수 없다는 말처럼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문제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일도 어렵다. 결국 내담자는 지극히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비하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하게 되고 바라보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관점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물가의 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은 결국 자신의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미성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자기를 뛰어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생겨야 하는 것이다.

V. 상담의 과정에서 본 통찰

1. 관계(rapport) 형성

부족한 것이 없는 예수께서, 온 세상을 다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속된 여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신다. 이로서 예수는 자신이 가진 무엇인가를 여인이 가졌을 것이라는 암시를 하며, 그녀를 자기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 올려놓으신다. 나아가 이러한 그의 태도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어 그녀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고 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갖는 자아상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실제로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다. 특히 아동기의 관계형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자기존경(self-respect)이 상실되고 자아관(self-conception)이 유실되었던-무시와 멸시와 조롱으로 인한 자기파괴가 극심하던-그녀에게 예수께서 하신 그녀의 가치에 대한 인정은 자기발견(self-discovery)과 함께 얼마나 큰 동기 유발이 되었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국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 나아가 내담자와 상담자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Communicator로서 역할

사마리아인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속하는 요셉의 자손임을 증거하고 있었다. 그 여인에게도 조상과 전통의 자랑이 있었다. 그래서 여인은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이까?’라면서 예수를 조상과 비교한다. 물길을 그릇도 없이 생수를 주겠다는 일을 의아하게 여기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 일에만은 일종의 우월성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우쭐대며 비교하려 드는 여인을 이해하신 예수는 그 여인의 질문을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았다. 예수는 물질적 생활만 추구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시고 평범한 유대인으로만 보였던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 보이시며 야곱의 우물 물을 구하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 화제를 발전, 확대시키고 있다. 예수는 여인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 야곱과의 비교에서 그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신을 유지시키면서,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녀의 욕심(요 4:15)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 말을 던짐으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문제에의 접근을 시도하고 계신다. 문제의 근본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허위와 위선으로 덮여진 가면을 벗겨 놓는 일이 필요했으므로 동요를 느낄 문제를 제기하신 것이다. 결국 예수는 Attention-Impact 전략을 통해 그녀의 삶과 존재자체에 대해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예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대화를 회피하고 종교적 문제를 끄집어 내려드는 여인의 자기 방어-납편이 없나이다-와 자기회피-예배할 곳-에 대해 진정으로 그 여인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과 구원의 세계로 그녀를 인도하고 있다(요 4:25). 여인에게 있어 그리심산은 사마리아인의 예배의 중심지로 신성시되던 곳 이었고 유대인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 인정되는 배타적 감정의 - 사마리아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실천 사이에 있는 대립문제- 해결자로서 또한 자기방어 본능에서 엉뚱한 질문을 하여 오는 여인의 이 같은 문제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배의 중심은 형식이 문제가 아닌 마음이 문제인 것을 밝히시고 그녀에게 메시지를 받아들일도록 요청하셨던 것이다.

3. 내담자에 대한 통찰

상담자가 내담자를 만난다는 것은 ‘이해’를 수반한다.¹⁾ 이는 공감(empathy)한다는 의미하지 동의(agreement)한다는 것은 아니다(Meier & Davis, 67). 이해라는 말은 ‘이는 저희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골 2:2). 이해라는 희랍어인 쉬니미, 쉬네시스(Synimi, Synesis)는 ‘함께 있다,’ ‘동행하다,’ ‘들은 것을 받아들여 따른다,’ ‘두江의 합침,’ ‘공동보조,’ ‘공존,’ ‘이해’등의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갈등과 욕망을 바라보기도 하고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희망과 기대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을 때는 정오경이었다. 이 시간은 보통 더위 때문에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은 대낮을 택하여 우물에 나와야만 했었나? 그녀에게는 물 길러 오는 일이 하나의 고통스런 일이었겠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4:15). 분명 이 여인은 대낮을 택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않고, 비웃는 눈초리, 수근거림, 비아냥거림과 조소를 당하는 일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예수는 이 사실뿐만 아니라 이미 그녀가 안고 있는 죄까지도 알고 계셨다. 또한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근본문제라는 것도 파악하고 계셨다. 예수는 생전 처음 만난 여인더러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지 않는가? 예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진정으로 그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관찰하고 이해하고 계셨던 것이다.

1) ① 심리적 공허, ② 영적 갈망, ③ 사회적 소외, ④ 육체의 탐닉, ⑤ 무너진 자존감(정신적), ⑥ 조상에 대한 자긍심(배경) 등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VI. 변화의 과정과 상담의 결과

‘내가 그로라.’ 예수의 결론은 상당히 단순명료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던지는 예수의 음성은 그 여인에게는 생명수를 받은 것처럼 기쁨의 충격이다. 주 절주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필요를 묻고,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명쾌함이 있다. 코 막히고 목이 막힐 때 먹는 박하사탕처럼 예수의 처방은 상큼하기까지 하다. 예수는 자신의 모습을 가식없이 있는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노출하셨다. 더위에 지치고 배고픔을 느끼는 자신의 인간다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신 예수께서 이제는 여인과의 상담을 통해 유대인으로(9절), 선지자로(요 4:19)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고 계신다. 그리고 공정한 판단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여인에게 분명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다(요 4:25-26).

예수와의 대화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변화를 단순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원인을 갖는다.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더불어 해결방법을 찾게 되면 아주 사소한 동기만을 가지고도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Meier & Davis, 68-69). 상담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고 이전의 삶이 영적 고갈 상태였다면 이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삶이 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생수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떠난다. 목마름에 지쳐 물 길러 왔던 여인에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주어졌다. 여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가 없다. 그 여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제 내면으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행복이다. 여인의 가슴은 벅찼다.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발견했음에야 더 이상 동리사람들에게 받았던 멸시와 수치가 문제이겠는가. 어쩌면 소극적이고 자기 우울증, 자기 소외감에 깊이 젖어 있었을 이 여인에게 이 같은 용기는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구나 그녀로 인해 사마리아 동네에 믿는 자

가 더욱 많아지게 된 것은 단순히 교인의 배가가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고 생명을 찾은 사람들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살았으나 죽어있는,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다. 다섯의 의미

없는 삶의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목적지가 생긴 것이다. 오랜 기다림과 지침 속에 만난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단순히 그녀의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상담자가 인도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던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요 4:42)은 과연 무리한 해석인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마음에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참 고 문 헌

- 김의식(2003), 『영적상담의 적용에 관한 연구』 일반상담과 목회상담,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송길원(1995), 『쉽표가 있는 삶』,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송길원(2003), 『“제자훈련을 통한 가정회복의 과제” 교회와 제자훈련: 제자훈련이 교회에 미친 영향과 전망』, 서울: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 이무석(1995), 『정신분석의 이해』, 광주: 전남대학교출판부
- 이성훈(1994),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성경과 내적 치유』,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이인복(1991), 『마리아: 치유를 위한 복음의 열쇠』, 서울: 도서출판 우진
- 정갑순(2003), 『주여!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리이까?』,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주계영(1999), 『크리스천 카운슬러 핸드북』, 서울: 베드로서원
- 최현주(1995), 『위장된 분노의 치유』, 서울: 규장문화사
- 황의영(1970), 『목회상담의 원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 Alice Morgan ed.(2004), “Once Upon a Time...”, 손철민 역, 『어린이 이야기 치

- 료』, 서울: 은혜출판사.
- Brian H. Childs(1995), “*Short Term Pastoral Counseling*”, 유영선 역, 『단기 목회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Charles H. Kraf t(1995), “*Deep Wounds, Deep Healing*”, 이운호 역,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서울: 도서출판 은성.
- Charles R. Solomon(1983), “*Handbook to Happiness*”, 김우생 역, 『영적 치유의 핵심』,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 Charles W. Taylor(2003), “*The Skilled Pastor*”, 황영훈 역, 『합리적 정서요법과목회상담』,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Donald Capps(2001),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 문희경 역, 『인간발달과 목회적 돌봄』, 서울: 이레서원.
- Gary Collins(1995), “*Innovative Approaches to Counseling*“, 정동섭 역, 『창의적 상담 접근법』,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Henri J. M. Nouwen(1999), “*The Wounded Healer*“, 최원준 역, 『상처 입은 치유자』,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Howard Clinebell(1987), “*Basic Types of Pastoral Care & Counseling*”, 박근원 역, 『목회상담신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Julia Kristeva, Soleil Noir: “*Depression et Melancolie*”, 김인환 역, 『검은 태양: 우울증과 멜랑콜리』, 서울: 동문선.
- Leon J. Saul(2004), “*Psychodynamically Based on Psychotherapy*”, 이근후, 최종진, 박영숙 공역(1992), 『정신역동적 정신치료』, 서울: 하나의학사.
- Marshall Cook(2003), “*Effective Coaching*“, 서천석 역, 『코칭의 기술』, 서울: 지식공작소.
- Michael St. Clair(1998),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이재훈 역,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대성관계 이론과 종교』,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Paul R. Welter(1995), “*Counseling and the Search for Meaning*”, 정태기 역, 『기독교 상담과 의미 요법』,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 Paul W. Pruyser(2002),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유희동 역, 『진단자로서의 목사』, 서울: (주)기독교문사.
- Ralph R. Greenson(2001), 이만홍·현용호 공역, 『정통 정신분석의 기법과 실제(1)』, 서울: 하나의학사.

- Raymond L. Cramer(1981), “*The Psychology of Jesus and Mental Health*”, 정동섭 역, 『예수의 심리학과 정신건강』, 서울: 생명의 말씀사.
- Rogers, C.(1998),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한승호·한성열 역,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Roll May(1979), “*The Art of Counseling*”, 이봉우 역, 『카운슬링의 기술』, 서울: 분도출판사.
- Scott T. Meier, Susan R. Davis(1997), “*The Elements of Counseling*”, 노안영 역, 『상담의 기본요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Seward Hiltner(1976), “*Pastoral Counseling*”, 마경일 역, 『목회 카운슬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iegel, Allen, M(2002), “*Heinz Kohut and Psychology of the Self*”, 권명수 역,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온전한 치유에의 길』,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Stevan Lars Nielsen, W. Brad Johnson, & Albert Ellis (2003),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Religious Persons*”, 서경현·김나미 공역, 『종교를 가진 내담자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울: 학지사.
- William Barclay(1984), “*And He Had Compassion*”, 김득중·김영봉 공역, 『예수의 치유이적 해석』, 서울: 컨콜디아사.

Abstract

A Pastoral Counsel Inquiry
throughout Jesus' Counseling and Curing

Kil Weon Song

This paper is to exhibit the practice of counseling method throughout a specific example of Jesus' counseling and curing for relationship in a case with a Samaritan woman next to a well.

Most of Jesus' works appeared to be counseling services. Jesus' action is understood by not only having conversation to care and counsel people, but taking actions. Throughout study of Jesus' counseling, which concentrated in inner cure for people's disease, it is mandatory to study for development of present theology counseling.

It is sufficient enough to draw a picture of Jesus' counseling method concentrated on human being itself, rather than solutions for conflict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method of making relationship leading to better counseling with applicant, and counseling strategy based on inter-change of applicant and counselor's relationship.

With this kind of fundamental rules, Jesus deals with problems by caring one's philosophy based on status of physical, mental, and spiritual. With this kind of

attitude, Jesus touches their mind by crying and laughing together with applicant using push-pull strategy, attention-impact strategy, and intention in - tension strategy.

Jesus' method forms rapport with applicant and taking appropriate role of communicator to maximize the effect of counseling. This study brings up solutions by explaining counseling methods to apply for today's counseling services.

Key words : counseling, Jesus' counseling example,
pastoral counseling